

# 通度寺聖寶博物館의 현황과 운영

金 梵 河 (通度寺聖寶博物館 館長)

## I. 머리말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성보(聖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불교문화의 보존과 그 활용문제는 한국 문화의 전통계승과 창조를 위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최일선에서 성보박물관을 운영해 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운영,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성보의 개념

성보란 불교의 교리와 신앙에 기초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조성된 조형물을 비롯하여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제작된 성물(聖物)을 일컫는다. 그리고 성보의 조성에는 그 시작부터 예배대상으로 모셔질 때까지 엄격한 의례에 의하여 조성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뜨거운 신앙심이 기울여지기 때문에 숭한 영험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성보는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조형물이지만 그 형상을 넘어선 존재로 미적 가치판단에 구애받지도 않는 존재이기도 하다.

흔히 성보를 불교미술에 대한 종교적 표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이라는 것은 성보에 포함된 유형(有形)의 장엄(莊嚴)일뿐 불교미술이 곧 전체의 성보를 대신할 수 없다. 성보 가운데는 무형의 성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도 성보에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면 불교의 다양한 의식과 관련된 작법 역시 성보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영주 부석사의 선비화나 통도사 자장암의 금와보살처럼 사찰의 창건설화나 연기설화와 관련된 고목이나 생명체들 역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성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간혹 성보와 문화재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재란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의 유물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고유의 생명력을

배제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성보는 신심과 원력에 의해 조성되어 지금까지도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을 말한다. 따라서 성보란 불, 법, 승 삼보에 근거하여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유형, 무형, 자연계를 포함하는 불교신앙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Ⅲ. 通度寺聖寶博物館의 현황과 운영

#### 1. 불교 성보박물관의 현황

##### 1) 건립목적

사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현재 많은 불교문화재들이 도난이나 훼손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안전한 보존조차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빈발하는 불교문화재의 도난 사건은 사찰 박물관이 건립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전체 국가 지정 문화재 5,064점 가운데 국보 169점, 보물 854점, 시도 지정유형문화재 875점등을 비롯해서 총 2,353점이 불교문화재로 47%를 차지한다.<sup>2)</sup>(표1)<sup>3)</sup>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일 뿐 실제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재에 대한 잠정적인 조사와 평가로 본다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른다.<sup>4)</sup>

불교문화재 도난사건은 최근 15년간 340여건 497여점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도난 문화재의 95%가 비지정 문화재이다.<sup>5)</sup> 이것은 현재까지 지정문화재만이 문화재 보호대상에 국한되어왔기 때문이다.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집중도난 원인을 보면, 지정이 되지 않았을 뿐 가치 있는 문화재가 많다는 점, 정확한 실태과

1) 梵河, 『聖寶文化財의 保存과 活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1998.

2) 홍선,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聖寶』 제4호,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2, 89쪽.

3) 현고, 「사찰문화재의 현황과 보존·관리실태」, 『聖寶』 제4호,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2, 11쪽.

4) 최근 문화재청, 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성보문화재연구원이 연차적으로 근현대 자료까지를 막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 제주도, 2003.)

5) 최근 도난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도난백서(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1999.)를 발간한데 이어 문화재청에서도 도난문화재 목록(문화재청, 『도난문화재목록』, 2004.)을 발간하여 도난문화재의 환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물론이요 개인 수집가도 도난품일 경우를 신중히 고려하여 유물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취 후 유통이 용이한 점, 지정문화재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점, 검거됐을 경우 법률적 처벌이 관대한 점 등과 사찰이 지리적으로 산간에 소재하고, 침입이 용이한 목조건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비지정 문화재는 자료가 거의 없어 도난여부의 확인은 물론 신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 가운데 1995년 발생한 순천 송광사의 16국사 진영 도난사건은 중요한 예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정부에서 불교문화재의 도난과 훼손의 심각함과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을 위해 사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건립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사찰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표 1> 지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의 비율

국 보		보 물		지방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총 계	
계	불교문화재	계	불교문화재	계	불교문화재	계	불교문화재	계	불교문화재
302	169(56%)	1,290	854(66%)	1,833	875(48%)	1,639	455(28%)	5,064	2,353(47%)

사찰 박물관의 시초는 1954년 통도사 관음전에 “보물장”이라는 명칭으로 유물을 전시한 일이다. 이 후 1975년 9월에는 보다 넓은 전시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만세루를 개수하고 전시장을 이전하면서 유물전시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로부터 1987년 10월에 박물관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약 80평 규모로 완공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규정에 의해 문화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사찰 박물관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게 본격적인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게 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개관과 함께 불교문화재의 관리와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의 기능을 담당하며 불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개관 이후 사용되던 전시관은 유물 보존을 위한 수장고와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열악하여 박물관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통도사에서는 정부의 보조와 사찰 자체 비용을 투입하여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대규모의 박물관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1999년 4월에 현재의 박물관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이를 모범으로 각 사찰에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 2) 성보박물관의 현황

현재 개관 운영되고 있는 사찰 박물관이 14개소이고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박물관이 7개, 진행 중이거나 설계중인 14소를 합하면 모두 35소가 된다.(표2)6)

여기에는 박물관 개관 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나 관리비 등 운영 예산에 대한 계획은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족한 예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박물관 건립을 요구하는 사찰 측에서도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 박물관에서 수장고, 전시시설, 방범·방화시스템 등의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sup>7)</sup> 또한 박물관 기능과 관련하여 불교문화재 관리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지원은 사찰 박물관 건립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6) 대한불교조계종, 「2004년 제1차 정보박물관 실무교육 및 간담회 자료집」, 2004, 69~70쪽.

7) 정승모, 「박물관의 특성과 건립·운영의 문제점」, 『불교와 문화』, 대한불교진흥원, 2003, 7,8월호, 54~55쪽.

<표 2> 전국 사찰성보박물관 건립현황 (2004년 7월 현재)

사찰명	규모	공사현황	국고 지원예산 (단위:억원)	개관현황	박물관등 록	전문인력
통도사	1,305평	94.05.07~99.04.11.	50	개관	등록	6인
수덕사	92평	97.02.28~98.10.30.	5	개관	등록	1인
대흥사	100평	97.05.01~98.10.30.	5	개관	등록	-
월정사	208평	97.04.11~99.12.31.	5	개관	등록	1인
금산사	161평	97.12.27~00.12.31.	5.6	진행중	-	1인
동화사	941평	99.11.17~00.12.31.	6	개관	-	-
도갑사	93평	99.01.12~00.12.30.	6	개관	등록	1인
옥천사	190평	97.06.30~99.12.31.	4.5	개관	-	-
표충사	82평	1988.	2.5	개관	등록	1인
범어사	153평	99.12.20~01.12.31.	8	개관	-	1인
해인사	1,007평	97.09.14~01.12.31.	34.5	개관	등록	2인
쌍계사	232평	99.05.20~01.12.31.	8	개관	-	1인
홍국사	142평	00.06.10~01.12.31.	7	개관	-	-
은해사	158평	1996.12.~2003.03.	3	보수중	-	-
선운사	164평	97.03.10~00.12.31.	2.5	진행중	-	-
용주사	100평	97.08.19~01.12.30.	5	진행중	-	1인
마곡사	115평	97.12.20~01.12.31.	5.5	진행중	-	-
백양사	131평	99.10.11~01.12.31.	6.2	진행중	-	-
불국사	-	-	7.5	설계중	-	1인
석굴암	-	-	7.5	설계중	-	-
봉정사	-	-	4	설계중	-	-
무위사	-	-	9	설계중	-	-
용화사	-	-	1.5	설계중	-	-
불갑사	-	-	2.3	설계중	-	-
보림사	-	-	-	설계중	-	-
기림사	-	-	2	설계중	-	-
창곡사	-	-	2	설계중	-	-
법주사	지하122평	1989.06.23.	-	개관	-	-
부석사	지상,지하1층	-	-	개관	-	-
송광사	154평	1997.	-	개관	등록	1인
직지사	78평	1989.06.	-	개관	등록	2인
총계		30개소	207.6	14개소	9개소	20인

## 2. 통도사성보박물관의 현황 및 운영

최근 사찰박물관 건립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수량, 지향하는 방향, 운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박물관의 규모나 설비가 결정되고 소요 예산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불교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하겠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의식을 바탕으로 박물관이 건립되고 운영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sup>8)</sup> 이러한 건립 추진은 박물관을 개관하더라도 운영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박물관 기능의 수행도 못하고 문을 닫거나 오히려 성보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극단적인 예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건립에 앞서 사찰의 소장유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특성을 살리고 내실 있는 전문박물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다음, 그 사찰의 교구와 특성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재화를 생산해 내는 장소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장소이다. 그러나 사찰성보박물관이 처해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박물관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자립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도사박물관의 현황과 운영을 통하여 통도사박물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하는지, 또한 박물관내 구성과 운영 등을 통해 다른 성보박물관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 1) 건립목적과 시설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 출발은 1954년으로, 통도사에 전래되어 오던 문화재들을 경내의 관음전에 진열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75년 9월에는 보다 넓은 전시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만세루를 개수하고 전시장을 이전하면서 유물전시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일반 관람객들의 호응과 사중 스님들의 성보 보존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고, 이와 함께 박물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1984년 사중 임회에서 구체화되어 박물관 건립 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1987년 10월에 박물관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약 80평 규모로 완공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규정에 의해 문화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사찰 성보박물관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게 본격적인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게 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개관과 함께 불교문화재의 관리와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의 기능을 담당하며 불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8) 홍선, 앞의 논문, 94쪽.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개관 이후 사용되던 전시관은 유물 보존을 위한 수장고와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열악하여 박물관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전시 유물의 급격한 증가와 박물관 기능의 다양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간과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통도사에서서는 정부의 보조와 사찰 자체 비용을 투입하여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대규모의 박물관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1999년 4월에 현재의 박물관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4,170여 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총 1,300여 평의 실내 전시공간과 학예연구실, 그리고 7개의 유물수장고와 자료실, 보존관리실,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신축 개관에 따라 첨단시설을 갖춘 유물수장고의 확보는 그 동안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장 유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중요문화재들의 위탁 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을 위해 마련된 150석 규모의 문화센터는 각종 문화강좌 및 박물관대학을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실은 본관과 별관<sup>9)</sup>에 걸쳐 모두 5개실이 운영되고 있다.

<표 3> 통도사박물관의 시설규모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대지	4,699m <sup>2</sup>	4,700평	도서관	1실 49.5m <sup>2</sup>	
건평	5,389.84m <sup>2</sup>	1,295평	시청각실	1실 99.1m <sup>2</sup>	
전시실	6실 1,434m <sup>2</sup>		문화센터	1실 162m <sup>2</sup>	
작업실	33.75m <sup>2</sup>		수장고	7실 260.52m <sup>2</sup>	
연구실	1실 162m <sup>2</sup>		문화센터 사무실	1실 20.25m <sup>2</sup>	
기타	2,337.84m <sup>2</sup>		사업기간	1994.05.07~ 1998.12.30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국가지정 국보 1건과 보물 18건을 비롯하여 지방유형문화재 41건, 문화재자료 16건을 포함한 약 3만 5천여 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선사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소장품은 대체로 사찰 전래유품과 불자들에게 의한 기증품으로 대별할 수 있고, 그 외 근래의 일부 수집품이 이에 속한다.

박물관 소장 유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600여 점에 달하는 불교회화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불화는 밑그림인 초본을 비롯하여 소형 사경변상도에서 높이가 15m에

9) 별관은 노천유물관으로 옛 박물관 전시실을 보수하여 방장월하 큰스님의 수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달하는 초대형 괘불에 이르기까지 장르가 다양하며, 이는 국내 박물관뿐만 아니라 세계 박물관을 통틀어 가장 풍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설계 이전부터 이들 불교회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중앙괘불전과 불교회화실은 괘불과 탕화를 상설전시하기 위하여 그 높이가 정해졌으며 유물수장고 역시 탕화와 일반 유물과의 보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전시실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박물관으로는 유일한 불교회화 전문 박물관이 될 수 있었다.

<표 4>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유물 현황

구분	금속공예	옥석토도	목공예	불화	서화	기타	계
수량	210여점	1,230여점	1,063여점	600여점	28,000여점	180여점	약 35,000여점

## 2) 조직과 운영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인원으로서는 관장과 학예연구실에 학예사 6명, 학예원 7명<sup>10)</sup>, 그 외 중앙통제실 3명, 관내의 매점 등 총 25명의 직원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실은 유물전시부, 유적조사부, 문화부가 주축을 이루는데, 유물전시부는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유적조사부는 박물관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교관련 유적조사 및 지표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부는 박물관 홍보와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섭외교육과에 해당되는 부서이다. 또한 일반 박물관의 경우 관리과를 따로 두어 예산의 집행과 동시에 박물관 학예에 관련된 사무 업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대신 관리과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관리부를 관장 직속으로 둔다는 점이 다른 박물관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 3) 기능과 역할

박물관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 중 가장 핵심 기능은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전시, 교육과 연구이다. 이처럼 사찰 성보박물관 대부분의 기능은 다른 박물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의 원래 목적인 불법홍보의 측면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다른 박물관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0) 학예사의 구성은 문화부, 유물전시부, 유적조사부, 사무관리부로 분류되어 있다. 학예원은 전산실 3명, 유적조사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정보의 보관 및 보존

(가) 박물관의 유물

사찰 정보박물관 설립의 애초 목적은 정보를 도난이나 훼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는가의 문제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통도사정보박물관은 정보문화재에 대한 보존측면에서 기획, 설계되었다. 문화재는 보존할 때 그 재질이나 성격에 따라 크게 2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재질에 따라 보관 장소의 환경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테면, 목제나 금속제품, 회화작품은 전혀 다른 재질의 특성상 한 장소에서 같은 온습도로 보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 유물을 재질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보관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유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위치에 격납하여 보관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유물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도사정보박물관은 2층 전시실은 모두 불교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유물이 이동 가능하도록 불화수장고가 2층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수장고는 준전시의 개념으로 정리해야만 한다.

이 같은 조건에 맞추어 통도사 박물관 유물수장고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와 금속, 회화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의 벽체는 모두 오동나무로 마감되어 있으며 격납장 역시 이들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다만 온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토도제품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수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표 5> 통도사정보박물관 유물수장고 내역

금 고 명 칭	유 물	금 고 명 칭	유 물
1금고	목제품	5금고	패블
2금고	금속품	6금고	토도류
3금고	서화류	7금고	참고품
4금고	불화		

(나) 말사의 유물보존

현재 개관을 했거나 또는 개관 예정인 사찰 박물관은 대체로 교구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해당 본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찰의 박물관만이 아니라 일종의 교구 박물관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그 업무 영역은 교구 전체로 확산되어 있다. 이를테면 박물관이 위치한 본사는 물론 관할하는 모든 말사에 산재한 문화재를 조사하거나, 사찰 소장 문화재를 지정 신청할 때 신청서류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대행하는 등 업무 영역이 박물관 안의 범위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유물의 보존과 관리는 단순히 박물관 안에 수장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 전체 사찰에 소장된 모든 유물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찰 박물관 고유의 특성이자 중요성을 일깨우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난이나 훼손의 위험 등에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유물의 보수나 보존처리 등을 담당하여 그 유물의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말사의 경우 사찰에 상주하는 스님들이 적기 때문에 야간이나 외출 등을 틈타 유물이 도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들 사찰에서는 본사에 박물관이 있는 경우 기탁 보관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sup>11)</sup>

#### (다) 유물등록작업

유물등록작업은 사찰성보박물관의 건립 취지와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유물등록작업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한다. 먼저 유물을 등록하기 위해서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진촬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등록된 유물은 유물카드나 대장으로 만들어지며 해당유물은 정확한 격납장소로 옮겨져 관리된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종전에 사찰에 소장된 유물을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유물의 인수절차가 미비해서 분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물등록이 완비되어 있다면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유물의 인수인계가 정확하며 혹시도 생길지 모르는 분실에 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유물등록작업 완료 후 유물의 재질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손쉽게 검색 또는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전시나 상설전시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지난 2000년부터 “국가문화유산정보시스템구축”<sup>12)</sup>을 통해서 유물을 등록하고 관리하였다. 문화관광부 유물분류표준화에 따라서 소장중인 유물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4000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후 연차적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6,000여건을 등록시켰다. 국가의 지원으로 그 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많은 유물들을 등록,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물등록사업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며, 유물 등록에는 해당 유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전공자와 유물등록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박물관 유물관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최근 이 같은 사업은 모두가 디지털화되기

11) 통도사의 경우 매년 중무감사를 통하여 말사의 성보문화재 보관이나 도난 여부를 파악한 후 보관이 허술할 경우 본사 박물관에 기탁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 관리를 박물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12) “국가문화유산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목표는 국보, 보물 등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미 지정된 유물, 민속 문화재 등 전국의 국립박물관, 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시도별로 분산된 문화유산 정보를 지식데이터 베이스로 통합,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연결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때문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장비와 사진기기 등과 박물관을 설계할 때부터 유물을 등록할 수 있는 유물정리실과 사진촬영실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박물관의 소장유물과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시킬지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 (라)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보존

박물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학술연구이다. 성보 박물관의 경우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박물관은 없다. 그러나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03년 국내성보박물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표조사 등록기관으로 인가 받아 2004년도 울산 동축사 삼층석탑을 복원완료한데 이어<sup>13)</sup> 통도사가 위치한 양산지역의 역사지도 사업을 위시하여 인근 양산과 언양지역의 유물조사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 유적조사부를 신설하여 선임연구원 1명 책임연구원 2명, 조사보조원 3명 등 총 6명이 이들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② 전시기능

박물관에서 전시는 그 박물관의 성격과 수준을 일반대중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박물관의 전시는 단순히 유물을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이미 박물관 설계이전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박물관 전시는 크게 설계이전의 작업과 설계 이후의 작업으로 나누어 생각해야만 당연하나 최근 건립되는 사찰박물관들을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고 건립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이전에서는 전시장의 크기를 먼저 염두해 두면서 유물의 성격에 맞추어 진열장의 크기와 시건장치의 문제, 또 어떠한 조명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한다. 또한 전시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 전시실의 성격에 맞추어 전시실의 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관람객의 동선을 어떠한 식으로 유도하여 유물을 통하여 박물관의 성격과 사찰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앞서도 언급한 대로 설계이전부터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다. 원래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상설실은 2개(역사실, 불교회화실), 기증실 1개, 기획실 1개, 중앙패블전 등 5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통도사박물관의 전시실이 다른 박물관과 크게 다른 점은 박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의 성격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각 법당 등에 모셔져 신자들의 예배를 받던 聖物이라

13) 통도사성보박물관, 『울산동축사 삼층석탑 학술조사보고서』, 울산시, 2004.

는 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박물관을 출입할 때는 야외화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전시실을 관람하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 관람객의 불편사항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물관 전시실을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한다는 통도사박물관의 기본개념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박물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도나 관람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볍게 삼배를 할 수 있다. 즉 살아있는 종교적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실을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다르지 않을까 한다.

이 같은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앞서 표2)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불교성보박물관은 일반 상설전시나 특별전시에 있어 전문 학예사의 유무는 전시의 질과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보 박물관은 인식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않음으로 특별전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설전시마저 운영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전시는 박물관에서 일반 대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따라서 특별전시는 기획 단계부터 어떠한 전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사찰박물관의 특별전시는 대체로 일반 박물관의 경우 특별전시와 유사한 면이 많지만 필자는 2가지 측면에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보박물관의 원 취지에 맞게 불교의 문화재들로 하여금 대중들에게 종교적 감응과 환희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 사찰박물관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sup>14)</sup>

그동안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기획 주체된 특별전시 가운데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불교왕국 티벳> 특별전시 같은 것이 전자의 경우에, 2002년 아시아게임 개최기념 <양산의 역사와 문화> 특별전시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전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획, 예산,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특별전시는 성사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전국 대부분의 성보박물관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14) 실제로 양산에는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유일한 박물관이다. 따라서 양산시 박물관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③ 사회교육

박물관의 기능 가운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교육이다. 여기에서 교육은 주로 사회교육을 말하는데,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에 따른 학술집이나 도록, 그 밖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박물관대학을 개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는 활동 등이다. 성보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관심 이외에 한 가지 사항이 추가되는데, 사회교육을 통한 불법홍보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불교회화 전문박물관에 맞게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먼저 인간문화재인 석정스님을 모시고 불화그리기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단청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각반과 다도반등의 실기 위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표6) 박물관에서는 이들의 실력 함양을 위해 일정기간 수강생의 작품전을 열어 전시회를 갖는다.<sup>15)</sup>

통도사성보박물관의 문화사업 중 가장 활성화 된 것은 박물관대학이다. 1999년 4월에 첫 개강한 이래 지난 1999년 12월, 1기생 93명을 배출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는 연구과정을 신설하여 박물관 대학 졸업생들에게 재학습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sup>16)</sup> 박물관대학은 그 동안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어도 직접 느끼고 체험할 기회가 없었던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수강생은 성보박물관회 회원으로 박물관의 운영을 돕는 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대학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회를 조직하여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대학은 2004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12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전통예술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다.

---

15) 원래 음력 9월 9일 통도사 개산대재를 맞이하여 전시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수강생이 졸업하는 2월에 맞추어 기획전시실에서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부도원에서는 다도반이 사라져 가는 전통다례의 맥을 잇는 헌다제의 재현도 행하고 있다.

16) 박물관 대학 연구과정의 수업은 매주 금요일에 이루어지고,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으로 3년과정이다. 강사는 현직 교수나 박물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 2회의 특별강연이 있다.

<표 6> 통도사성보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2004년 12월 현재)

강좌명	기간	인원	내용
초·중등교원 전통문화 연수	년 2회 8월중(하계) 1월중(동계)	80명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강의와 문화유적답사 등을 실시하는 문화연구 전문과정
불교회화과 단청반	매년 4월, 10월 모집 (6개월과정/매주 토요일 11시-16시)	20명	기초반과 연구반으로 나뉘어 사찰, 궁궐건물을 장식하는 단청기법을 실습과 이론교육을 통한 전통방법으로 지도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증 예비)
불교회화과 불화반	매년 1월, 7월 모집 (6개월과정/매주 목요일 10시-16시)	20명	기초반과 연구반으로 나뉘어 불화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전통방법 그대로 불화를 그릴 수 있게 지도
전통공예과 서각반	수시모집 (6개월과정/매주 수요일 10시-16시)	20명	목판에 서체를 새기는 실습과정으로, 전통서각과 현대서각을 두루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불교다도과	매년 3월 모집 (3년과정) 월, 수 10~15시	30명	초급 1년, 중급 1년, 고급 1년, 사범과정 1년 등을 거쳐 불교다도지도자로 육성
불교문화과	매년 3월 - 12월 (매주 금요일 13시-16시)	50명	불교문화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문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와 조형예술을 바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자질을 함양시키는 교육과정

한편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국 초중등교원 전통문화연수”를 동계와 하계에 나누어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우리나라 문화, 특히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교육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을 유도하는데 있다.<sup>17)</sup>

지금까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난 2000년 박물관 신축개관 1주년 기념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 특별전시에 개최되었던 “한중일 사리장엄의 종합적 검토”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설립된 통도사불교미술사학회는 보다 전문적인 학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불교미술사학회는 학연, 지연, 인맥 등에 구애없는 불교미술사학 모든 전공분야를 포괄하는 열린 학회를 결성하여 불교 건축을 비롯하여 조각·회화·공예 등을 포괄하는 불교미술 전분야의 전공자로서 20~40대에 이르는 신진연구자들을 묶어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

17) 2003년 여름에 처음 교사연수를 시작하여 2004년 겨울에는 각각 40명씩 80명이 전통문화연수를 이수하였고 2004년 하계교육부터는 인원을 80명으로 증원하여 2005년 1월 교육까지 포함하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전통문화연수를 거친 교사는 총 240여명에 이른다.

활발한 토론과 발표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2001년 10월 국내 소장학자들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2003년 제2회 “괘불탱의 종합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춘·추계로 나누어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 중에 있다. 현재까지 두 번의 학회지가 발간되었다.<sup>18)</sup>

#### 4) 자원봉사회 및 후원단체

##### ① 자원봉사회

통도사성보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다.<sup>19)</sup> 전시실 운영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자원봉사회에서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있다.<sup>20)</sup> 박물관의 곳곳에는 자원봉사자의 체취가 물씬 풍기고 이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거대한 수레의 한 축임을 느낄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의 핵심은 전시실 관리와 전시실 안내이다. 자원봉사는 전체 28개조로 편성되어 개인이 한 달에 한번 봉사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자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해 각종 우수 봉사조와 우수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통도사 박물관의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박물관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의 많은 업무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진해서 일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들의 연령층과 직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통도사성보박물관을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만드는 최고의 요소는 문화자원봉사회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② 문화자원봉사회 후원회

문화자원봉사회 후원회는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의 취지를 받들어, 문화자원봉사회의 후원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에 결성하였다. 후원회의 회원은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결정된다.

문화자원봉사회 후원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와 연 4회의 이사회를 거쳐 문화자원봉사자를 후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자체 친목을 돕는 후원단체이다.

18) 불교미술사학회, 『불교미술사학』-1집, 2003년. 불교미술사학회, 『불교미술사학』-2집, 2004년. 통도사성보박물관.

19)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자원봉사자는 전체 등록자 약 1,250명 중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600명, 대기인원은 약 6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1999년 3월 21일에 박물관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박물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 ③ 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에서는 유물구입과 전시회의 도록발간, 음악회, 강연 등 그밖에도 여러 가지 박물관 행사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sup>21)</sup> 연령은 40, 50대가 주를 이루고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신도들을 비롯해서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 ④ 인등연등회

인등연등회는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사찰성보박물관이 일반박물관과 다른 점이 신앙의 결정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박물관내 중앙 괘불전시대 좌우로 인등을 밝힐 수 있는 대를 마련하고 가족들의 축원 등을 담아 인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1달에 1회 인등법회를 갖는다. 인등회원은 약 3,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의 연회비는 박물관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5) 예산 확보 및 집행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재정 또한 타 박물관들과 같이 종무소에서 의결된다. 박물관의 수입은 매일 종무소에서 관할하고 필요한 예산은 종무소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또한 박물관에서 종교적 신앙과 접목시켜서 인등접수를 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의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문제를 자원봉사자<sup>22)</sup>들의 전시실 관리와 안내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 ■ 성보박물관 수지총괄표 (1999. 4. ~ 2004.11. 현재)

년 도	수 입 부	지 출 부	비 고
1999	288,970,000	282,473,000	6,497,000
2000	452,590,000	583,852,000	-131,262,000
2001	377,899,000	489,113,000	-111,214,000
2002	390,317,000	410,553,000	-20,236,000
2003	467,000,000	444,740,000	22,260,000
2004	430,999,000	453,089,000	-22,090,000
계	2,407,775,000	2,663,820,000	-256,045,000

21) 발전 위원회는 1년에 5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한 달에 한번씩 발전도모 친목회를 갖는다.

22)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자원봉사회 운영은 사립박물관의 가장 큰 관건인 인건비 부담을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제2차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① 항목별 수입현

가) 입장료 (%는 전체 수입부 대비)

년 도	유료관람객	입장 수입	무료관람객	비 고
1999	109,580	106,908,000 (37.0%)	184,854	
2000	146,594	148,836,000 (32.9%)	84,579	사리장엄구 특별전 150,000명
2001	69,157	133,718,000 (35.4%)	83,217	티베트유물 특별전 35,000명
2002	50,980	80,881,000 (20.7%)	89,799	양산의 역사와 문화 특별전 50,000명
2003	44,774	73,185,000 (15.7%)	62,199	
2004	33,515	53,040,000 (12.3%)	59,874	
계	454,600	596,568,000 (24.8%)	564,522	

나) 수익사업

년 도	문화강좌수입	문화상품판매수입	휴게실운영수입	합 계
1999	12,000,000 (4.1%)	40,373,000 (14.0%)	19,689,000 (6.8%)	72,062,000 (24.9%)
2000	8,000,000 (1.8%)	57,000,000 (12.6%)	47,998,000 (10.6%)	112,998,000 (25.0%)
2001	10,000,000 (2.6%)	49,794,000 (13.2%)	58,480,000 (15.5%)	118,274,000 (31.3%)
2002	6,080,000 (1.6%)	35,550,000 (9.1%)	148,298,000 (38.0%)	189,928,000 (48.7%)
2003	6,840,000 (1.5%)	22,164,000 (4.7%)	195,198,000 (41.8%)	224,202,000 (48.0%)
2004	4,300,000 (1.0%)	24,323,000 (5.6%)	171,043,000 (39.7%)	199,666,000 (46.3%)
계	47,220,000 (2.0%)	229,204,000 (9.5%)	640,706,000 (26.6%)	917,130,000 (38.1%)

다) 후원금 수입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후원금수입	0	36,075,000 (8.0%)	75,907,000 (20.1%)	79,508,000 (20.4%)	69,613,000 (14.9%)	80,293,000 (18.7%)	341,396,000 (14.2%)

라) 통도사 지원금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지원금	111,000,000 (38.1%)	154,681,000 (34.1%)	50,000,000 (13.2%)	40,000,000 (10.2%)	100,000,000 (21.4%)	98,000,000 (22.7%)	552,681,000 (22.9%)

② 항목별 지출현황

년 도	인 건 비	시설관리비	유물관리비	유물구입비	합 계
1999	112,600,000 (39.9%) (17명)	148,321,000 (52.5%)	21,552,000 (7.6%)	0 (0%)	282,473,000 (100%)
2000	153,840,000 (26.3%) (21명)	235,030,000 (40.3%)	30,362,000 (5.2%)	164,620,000 (28.2%)(346점)	583,852,000 (100%)
2001	176,760,000 (36.1%) (21명)	224,060,000 (45.8%)	40,950,000 (8.4%)	47,343,000 (9.7%)(27건50점)	489,113,000 (100%)
2002	194,004,000 (47.3%) (21명)	142,739,000 (34.8%)	13,960,000 (3.4%)	59,850,000 (14.5%)(18건62점)	410,553,000 (100%)
2003	201,610,000 (45.3%) (18명)	137,658,000 (31.0%)	12,942,000 (2.9%)	92,530,000 (20.8%)(25건176점)	444,740,000 (100%)
2004	194,494,000 (42.9%) (17명)	135,787,000 (30.0%)	24,808,000 (5.5%)	98,000,000 (21.6%)(1건 1점)	453,089,000 (100%)
계	1,033,308,000 (38.8%)	1,023,595,000 (38.4%)	144,574,000 (5.4%)	462,343,000 (17.4%)	2,663,820,000 (100%)

3. 성보박물관의 활용

성보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성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사찰은 성보의 寶庫이며 사찰 그 자체가 보존해야 할 성스러운 보물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성보가 지닌 종교적 의의는 물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현실적인 성보의 활용 방안을 몇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수행과 신행심의 표본으로서 활용

성보는 처음 조성 당시부터 오늘날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끔 잘 보존되어 오기까지 수 많은 선사들의 지극한 신심과 원력이 배어 있는 聖物이다. 따라서 숭한 영험은 물론 신비로운 체험의 영이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성물로서 불교 사찰에서는 불상이 조성되었고 탱화를 그려 법당에 봉안했으며, 법당을 짓는 그 자체 또한 수행으로 생각해 왔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조성된 성보들은 많은 불자들에게는 신심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성보를 조성하는데 동참하는 그 자체가 성불의 지름길이요, 업장소멸을 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믿어 왔으며 이러한 성보야말로 수행과 신행심의 표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성보박물관의 역할과 활용

성보박물관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법당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고 건립되어야 한다. 사찰의 법당은 불교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예배공간이지만, 비불교인들은 그저 지나쳐버리기 일수인 단순한 건물일 뿐이다.

따라서 박물관이라는 열려있는 공개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진 정보들을 보존관리하고 전시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시청각 포교의 장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박물관대학 및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터전인 사찰이 전인교육의 수련도량으로, 맑은 물과 울창한 수목, 경관이 빼어난 곳에 위치한 산사가 환경운동의 산 교육장으로써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문화관광자원으로의 개방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800여 개의 전통사찰을 비롯하여 관람료 징수사찰은 이미 관광사찰로 개방되어 있으며 이들 사찰 재정의 상당 부분은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찰 내에서 개방할 곳과 개방하지 않을 곳으로 명확히 구분한 후 수행과 수행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일반인 관광객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단 사찰을 현실적으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밀려드는 관광객에게는 개방하지 않고는 도리가 없는 형편이다. 이왕에 현실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비한 가람불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곳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불교 성보가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구촌시대인 현대에 있어 우리 사찰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각종 영상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 IV. 聖寶博物館의 문제점과 개선책

### 1. 전제조건

필자는 성보보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싶다. 첫 번째 성보란 우리 불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일차적 관리 책임은 우리 불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성보문화재들

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 스님들의 인식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성보의 보존관리에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종단은 강 건너 불 보듯 해왔지만 앞으로는 종단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단 종법을 개정하여 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즉 포교를 통해서 성보문화재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성보 보존도 수행이나 신앙의 한 방법이라는 점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포교의 방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인식전환이다. 사찰의 문화재는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니며 모든 국민이 소유해야 할 공동의 문화적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박물관 체제 내에서 사찰박물관은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성보박물관의 건립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개관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성보박물관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박물관은 준 국립의 개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문제점과 개선책<sup>23)</sup>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 1) 예산의 확보

사찰박물관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예산의 문제이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도움으로 설립예산이 확보되어 공사는 어떻게든 진행되나 문제는 설립이후의 운영예산이다. 사찰박물관은 설립과 동시에 박물관법에 의해 등록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입장료수입은 박물관의 운영비에 10%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치이다. 그래서 사찰박물관 나름대로 아트숍이나 다른 부수입원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박물관 운영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따라서 해당 사찰이든 정부든 어떠한 예산 지원이 없이 사찰박물관의 운영은 불가능하다.<sup>24)</sup>

필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앞서 언급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변환이다. 즉 사찰박물관의 문화재가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예산지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박물관 존재여부를 떠나 문화

23)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최근 폭 넓은 토론이 진행되면서 몇차례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대한불교조계종, 『聖寶』4호,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안,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2.

24)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지적되고 있다.(홍선,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聖寶』4호, 대한불교조계종, 2002.)

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모든 사찰 자체의 인식변환이다. 종교는 대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종교에서는 그 무엇보다 포교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데, 성보박물관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로 문화포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관람료의 원래 목적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데 쓰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마치 사찰의 고정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다른 불사에 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필자는 이 같은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의 보존적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각 사찰의 주지의 노력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람료의 일정부분을 원래의 의도에 맞게 문화재의 보호와 문화포교사업으로서의 성보박물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물관이 개관한 후 운영비로 지급될 전기료, 공조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찰박물관은 대부분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공기가 좋기 때문에 춘추계에는 자연환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일반 도심에 위치한 다른 박물관이 가지지 못한 장점 중에 하나이다.

## 2) 전문인력의 확보

현재 사찰박물관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사찰박물관의 대부분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확보하고 있다하더라도 잦은 이동으로 연속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어려운 점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미흡하거나 각 사찰에 속한 스님들의 인식부족이 크다고 생각한다.<sup>25)</sup> 따라서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3) 각 사찰박물관의 특성화

각 사찰은 누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창건했는지에 대한 創建緣起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국가적 사업으로 건립되는 國刹이 있고,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건립되는 願刹이 있고, 한 개인의 발원에 의해 지어지는 願堂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연과 동기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찰은 서로 다른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배의 대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 건립되는 사찰박물관들은千篇일률적인 불교문화재를 전시할 것이 아니라 각 사찰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된 박물관

25) 대체로 절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은 보시의 개념이 강하다. 따라서 일정한 제도에 의해 직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동시에 임금도 년차나 급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에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심지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개념이 박물관 전문인력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돈독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사찰박물관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물관을 운영해야 한다.

최근 이 같은 성격의 반영하듯 통도사박물관은 불교회화전문박물관으로 직지사박물관은 금석문전문박물관으로 수덕사근역박물관은 전적류를 중심으로 한 전문박물관으로 개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찰이 지닌 이러한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흥법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사찰의 전통과 그 문화적 의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이라 생각한다.

#### 4)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정보 조성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정보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최근 각 사찰별로 많은 佛事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이다. 가령 범종은 경주 성덕대왕 신종을 비석은 태종무열왕릉의 귀부를 모방하여 만드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교미술품은 시대와 지역에 맞게 오랜 시간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도 변화하여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 시대만의 새로운 예술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불사나 정보조성시에 감독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각 사찰의 정보박물관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불사는 예로부터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 교리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능한 불사를 진행하여 종교적이나 예술적으로 이 시대의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의무이다.<sup>26)</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통도사정보박물관을 통하여 사찰박물관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삶을 가꾸는데 있다. 정보문화재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입각하여 예배의 목적으로 또는 교화의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 같은 정보를 보관하는 사찰의 정보박물관은 현재의 범당보다도 더욱 성스러운 예배의 공간이자 포교의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정보문화재들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만 하는 인류 공용의 문화재이므로 정보의 보존은 한 사찰이나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 속에 보존·전시되어야만 한다.

26) 통도사정보박물관에서는 2000년 불사리 특별전을 기념하여 무구정경의 법식에 의하여 소탑 999개를 공양반아 박물관 앞에 삼층석탑을 건립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이하여 2002명의 시주를 받아 대형 패블탱을 조성한 바 있다.(통도사정보박물관, 『통도사 월드컵 만다라 패블탱』, 2000.)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인식, 예산, 인력 확보 등의 부족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최근 개관한 정보박물관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각 사찰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 박물관을 이루어 발전하는 자구책을 구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 또한 각 사찰박물관을 관리 운영하는 관리자의 인식변환을 촉구하는 바이다.